국별리포트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4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9

Ⅳ. 국제신인도 12

Ⅴ.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스리랑카

Ⅰ. 일반개황

면 적	66천 Km^2	G D P	428억 달러(2008년)
인 구	19.4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2,210달러(2008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Sri Lanka Rupee(SLR)
대 외 정 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 율(달러당)	108.30(2008년)

- 인도 남동부 인도양상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2/7 수준이며, 인구는 약 1,940만 명임.

- 내수시장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곤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근 GDP의 58%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해왔음.

-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LTTE)간에 오랜 내전을 겪어왔으며, 최근 정부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타밀반군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치, 사회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Ⅱ.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 제 성 장 률	5.4	6.2	7.7	6.8	5.8
재 정 수 지 / G D P	-7.4	-7.0	-7.0	-6.9	-6.4
소비자물가상승률	7.6	11.6	10.0	15.8	22.6

자료 : IFS, EIU

□ 내전으로 인한 투자, 소비심리 악화로 경제성장세 둔화

- 스리랑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음. 특히 2006년에는 서비스부문과 건설부문의 호조로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07년에도 민간소비 증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GDP의 58%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7.1% 성장 등으로 인해 6.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휴전협정 종료 이후 격화된 정부와 타밀반군의 무력충돌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부진했으며,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부진도 이어져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에는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 종식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사회적 안정에 따라 농업생산이 증가하고 부진했던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아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부문 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 스리랑카의 재정수지는 국방부문의 지출이 계속 확대되면서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나,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로 투자여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조세수입 증대, 조세행정 개선, 정부부채 관리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 높은 물가상승률, 정부와 반군 간 교전 격화 등으로 악화된 민간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간 -7.0% 내외의 재정수지/GDP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7.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유가와 식료품가격 상승세로 인플레이션 우려

- 2004년까지는 물가지수 구성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2007년에도 고성장 정책의 유지, 정부지출 확대, 국제유가 급등과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5.8%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도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2.6%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며 유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2008년 5월 26.2%의 높은 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높아졌음.

- 2009년에는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 6.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존함.

- 소비 및 투자심리 악화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금리 인상 대신 시중 유동

성 감시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면서 2009년 2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구조적 취약성>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현재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반군과의 교전 악화로 인한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가 스리랑카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높은 대외의존도

- 스리랑카는 국토와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특히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임.

□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내수시장

- 스리랑카는 인구 2천만 명 이하의 개도국으로서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고려하여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큰 약점임.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근 국가인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스리랑카를 통한 우회진출 대신 이들 국가로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낮은 노동생산성

- 스리랑카의 노동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남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은 높은 편임. 노동법이 경직되어 종업원 해고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며, 공휴일이 많고, 고급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열악한 인프라

- 열악한 인프라는 스리랑카 투자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력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비싼 전력요금 및 잦은 정전 등으로 인해 도시 소재 기업의 약 75%는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전력공급의 5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투자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임.

<성장잠재력>

□ 관광산업의 성장성

- 스리랑카는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연중 내내 해변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고, 섬 중앙부에 고원지대가 자리잡고 있어 고원 휴양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고대 유적지도 많은 편이어서 종합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함.

- 최근 쓰나미 및 내전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으로 스리랑카의 통신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통신산업이 스리랑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6년 7.4%로 증가하였고, 휴대폰 보급은 연간 50%대로 성장을 하여 사용인구는 2001년 67만 명에서 2006년 540만 명을 거쳐 2008년 9월 기준 99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스리랑카가 남아시아 7개국 중에서 이동전화 부문의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문맹률이 10%를 넘지 않고, 영어사용 인구가 많으며, 스리랑카 젊은이들이 최신 IT 장비 유행에 민감하여 최신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또한 중고 휴대폰 시장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동전화 보급률 증가의 요인임.

-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투자액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도의 거대 통신기업인 Bharti Airtel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여 약 2억 달러를 투자해 스리랑카 5개 지역에 450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임.

<정책성과>

□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예금 유치 허용

- 정부는 2008년 6월 시중 상업은행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예금을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외국의 개인, 펀드, 기업들은 스리랑카 현지통화 혹은 다른 외국통화로 스리랑카 현지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 예금잔액은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함. 시중은행들은 스리랑카 국내예금의 20%까지 외국인 예금을 유치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스리랑카 현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인투자자 예금을 활용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반면, 이와 같은 정책을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에 위험을 느낀 스리랑카 정부의 적극적인 외화 유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스리랑카 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2000년에는 인도와 2005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음. 또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등은 2006년 1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

- 스리랑카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기업 과실의 송금 보장,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 자유로운 주식 양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2008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9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115위), 인도네시아(119위), 베트남(135위) 보다도 앞선 순위임. 이러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가 결합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상수지	-677	-743	-1,599	-1,464	-2,621
경상수지/GDP	-3.3	-3.0	-5.7	-4.5	-6.1
상품수지	-1,443	-1,630	-2,345	-2,429	-4,128
수출	5,757	6,347	6,883	7,741	8,204
수입	7,200	7,977	9,228	10,170	12,332
외환보유액	2,058	2,581	2,762	3,443	2,300
총외채잔액	11,085	11,272	11,446	12,204	13,633
총외채잔액/GDP	53.7	46.2	40.5	37.7	31.8
D.S.R.	8.5	4.5	8.8	6.5	6.5

자료 : IFS, EIU

□ 유가 및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 스리랑카는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수출은 섬유 및 의류, 차, 고무관련 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2007년 차 생산량과 수출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수출액도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 상승한 약 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차를 비롯한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상품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고유가 현상과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는 2007년 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그 규모가 41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계속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으로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07년 21억 달러로 흑자가 증가하였음.

- 2008년에는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안상황 악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가 2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2007년 -4.5%에서 2008년 -6.1%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IMF와 19억 달러의 차관 도입 협상중

-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힘입어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 말 30억 달러에서 2008년 말 약 1.7개월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21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 및 외채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 3월 이후 IMF와 약 19억 달러의 차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안정>

□ 정부와 타밀반군(LTTE)간의 휴전협정 폐기

- 지난 2002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지원 및 노르웨이의 중재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간의 휴전협정이 발효되어 2~3년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으나, 2005년말 현 정부의 집권 이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하였음.

- 휴전협정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더 이상의 평화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타밀반군과의 휴전협정 폐기를 결정하였음.

- 스리랑카 정부는 휴전협정 폐기 이후 동북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밀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하였고, 이에 맞서 타밀반군은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 주요시설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한 테러활동을 펼치고 있어 스리랑카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

□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분쟁 지속 전망

-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1월 정부군이 타밀반군의 정치적 수도인 킬리노치치를 함락하고 최후 거점인 푸투쿠디이푸르까지 포위함으로써 반군의 투항을 촉구하고 있으나, 반군도 이에 맞서 콜롬보를 공습하고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반군지역에 남아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무력을 통한 내전 종식을 눈앞에 둔 정부

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09년 중반까지 반군세력을 완전히 포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군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양측의 분쟁과 폭력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유지

- 스리랑카와 인도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타밀반군 및 해양경계 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불편한 관계를 지속한 바 있음.

-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점차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2007년 스리랑카 수출의 9.9%, 수입의 21.7%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음.

□ 서방국가의 원조 축소 움직임

- 스리랑카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EU 국가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특히, 서방거주 타밀계들의 타밀반군 지원 차단을 위해 미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타밀반군과의 치열한 내전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민간인 피해, 인권침해 등을 사유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스리랑카의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 실패

- 2008년 5월 UN 총회에서 실시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스리랑카는 재선에 실패하였음. 이는 타밀반군과 정부군간의 교전 심화에 따

른 인권 침해와 정부의 언론 탄압 증가 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것 때문으로 분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안정>

□ 타밀족과 싱할리족간의 종족 갈등

- 스리랑카 동부 및 북부지역에 밀집 거주하며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타밀족(17%)과 다수족인 싱할리족(70%)간에 종족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 과거 영국이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인 타밀족을 우대함에 따라, 싱할리족의 불만이 커졌고, 1948년 독립 이후 타밀어의 공용어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양 종족간 긴장이 고조되었음.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인종 분규는 1983년 타밀지역에서 강경파인 타밀반군(LTTE)이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격화되었음.

- 이후 타밀반군은 스리랑카로부터 완전 독립을 주장하며 반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정부군과 타밀반군간의 내전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으로, 2002년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서명되기까지 20여년간 약 6만 5,000명이 사망하였음.

- 그러나 휴전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양측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 12월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5천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정부가 타밀반군 지역에 거주하는 타밀족을 반군 동조세력으로 간주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었음.

<소요/사태>

□ 타밀반군의 무차별 테러공격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정부군과 타밀반군과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타밀반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도로, 버스, 기차, 쇼핑센터 등에 대한 폭탄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타밀반군의 테러활동으로 2008년 다사나야케 건설 부동산 인프라개발 장관 및 페르난도풀레 도로개발부 장관 등이 사망하였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2008년 말 스리랑카의 총 외채규모는 136억 달러로 견조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이 2004년 53.7%에서 2008년 31.8%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스리랑카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D.S.R.이 10% 이하를 기록하여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휴전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스리랑카의 국내 안보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해외 원조기관들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원조자금의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 2008년 4월 OECD 회의에서 정치 불안, 높은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적자 증가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Fitch는 2008년 4월 3일,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재정적자,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악화, 외채부문의 전망 악화,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교전

격화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의 외화표시 장기채권의 등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S&P도 2008년 12월 15일, 스리랑카가 재정수지 적자 및 과중한 정부 채무(2008년 GDP의 7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재정관리 노력이 부족하고,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종전 B+에서 B로 하향조정하였음.

· OECD : 5등급(2006.4) => 5등급(2007.3) => 6등급(2008.4)
· S&P : B+(2005.12) => B(2008.12)
· Fitch : BB-(2005.12) => B+(2008.4)
· I.I. : 98/174(2007.9) => 99/174(2008.3) => 103/177(2008.9)
· Euromoney : 97/185(2008.3) => 100/186(2008.9) => 97/186(2009.3)
· ICRG : 119/140(2007.12) => 120/140(2008.6) => 120/140(2009.2)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고용협력 분야에서 2004년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음.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유상 원조사업의 중점 협력대상국가의 하나로, 2009년 3월 기준 총 16건의 사업에 약 1,631억원의 EDCF 자금이 집행되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협력기금 집행이 많은 나라임.

(단위: 천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주요 품목
수 출	193,245	186,117	626,560	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합성수지 등
수 입	38,711	47,324	59,422	식물성물질, 의류, 섬유제품 등

Ⅴ. 종합 의견

- 스리랑카는 2002년 이후 서비스부문의 성장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08년 정부와 타밀반군의 교전 격화, 물가 급등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5.8%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내전 종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2.6%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부문 지출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 수출 감소 및 관광산업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외환보유액(약 1.5개월의 수입액 수준) 부족, 외채의 지속적 증가 등이 스리랑카 경제의 위협요소로서 스리랑카는 국내 경제기반이 협소하여 해외 원조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1월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 휴전협정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이후, 양측간 교전이 격화되고 당분간 스리랑카의 국내 안보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외 원조기관들이 원조자금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 요인을 반영하여 2008년 4월 OECD에서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Fitch는 2008년 4월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BB-에서 B+로, S&P는 2008년 12월 B+에서 B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였음.